

두경부에 발생한 NK/T 세포 림프종의 임상양상과 치료성적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,¹⁾ 진단병리학교실²⁾
 혈액종양내과학교실,³⁾ 치료방사선과학교실⁴⁾

정유석^{1)*} · 손영익¹⁾ · 백정환¹⁾ · 이현석¹⁾ · 고영혜²⁾ · 김원석³⁾ · 안용찬⁴⁾

배경 및 목적 : NK/T 세포 림프종은 과거에 angiocentric lymphoma로 분류되었던 질환으로, 아시아에서 특히 발생률이 높고, 비강을 비롯한 중심부 구조에 호발하는 양상을 보이며, 예후가 불량하여 진료시 주의를 요하는 질환범주이다. 저자들은 두경부에 발생한 NK/T 세포 림프종의 임상양상과 치료 경험을 분석하여, 향후 본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.

방 법 : 최근 5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경험한 NK/T 세포 림프종 환자 중두경부에 주된 병변이 있었던 23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연령, 성별, 원발병소, 환자의 주증상, 이학적 소견, 진단과정, 조직 생검 소견, 병기 및 각 병기에 따른 치료성적 등을 분석하였다. 병리적 특징의 규명은 면역조직화학염색, 유세포계측검사, 그리고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 근거하였다. 치료는 항암화학요법(CHOP)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.

결 과 : 남녀 비는 1.3 : 1이었으며, 평균 42.8세(28~66세)였다. 원발병소는 비강이 17례, 구강 및 구인두가 6례였다. 비폐색, 비강출혈, 비루 등의 비증상이나(94%) 인후통, 재발성 구강궤양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고, 발열, 야간 발한, 체중감소 등의 B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았다(65%). 육아종 등의 염증소견 및 부분괴사를 동반한 만성 궤양이 주된 이학적 소견이었다. 병리적으로 전례에서 NK lineage였고 EBV와 연관성이 높게(78%) 조사되었다. 전체 3년 생존률은 34%로서 병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(1,2기 : 43%, 3,4기 : 10%)

결 론 : NK/T 세포 림프종은 안면을 포함한 두경부의 중심부 구조에 호발하고 기타 비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치료성적이 나빴으며 올바른 조기진단 및 적극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.